

마리아—충성스러운 어머니

핵심 구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였다.”

누가복음 2:19

선정된 성경 구절:

누가복음 1:26-56; 2:15-19; 요한복음 2:1-5; 19:25-27

오늘의 교훈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인구 조사 명령에 따라 등록하러 온 여행자들로 가득 찬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그 군중 속에는 나사렛 출신의 목수 요셉과, 아이를 임신한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해 왔으며, 먼지 자욱한 길을 헤쳐 나가며 봄비는 마을에서 숙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3

그 근처,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천사가 함께했습니다. 누가복음 2:8-14

기록은 이어집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이 일어난 일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았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이 아이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를 널리 알렸는데,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목자들이 전한 말에 놀라워했다.” 누가복음 2:15-18

마리아에게는 일어난 모든 일이 당혹스러웠고, 본문은 그녀가 이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궁금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비록 몇 달 전 천사가 그녀에게 “다윗의 왕좌”를 물려받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었지만, 마리아는 아들과 관련된 이 신성한 계획의 전모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서 약 3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그 후 2천 년에 걸쳐 형성될 제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실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류에게서 죄와 고통과 죽음을 근절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반열에 속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피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육신의 쾌락에 영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2,3). 죄가 되지 않는 많은 활동들이 육신을 기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정 금령들과 달리,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랑과 의의 법의 “정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로마서 7:6

우리는 이 본문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를 본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2